

‘겨울철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Zero!’

- 안품질,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품질교육 실시 -

안전품질실(실장 석종근)은 전국 5개 지역본부에 산재된 철도건설 관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14년 동절기대비 철도건설 현장 안전·품질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교육 내용은 최근 3년간 동절기 사고사례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예방대책 중심으로 안전·품질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미끄럼 추락 방지대책 ▲협착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장비 및 노면 관리 ▲건설 현장 난방시설에 의한 화재 및 질식 예방 대책 ▲폭설에 의한 가시성 붕괴 예방 ▲강풍에 의한 자재 낙하 방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행복한 브레인 명상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이슈사항인 레미콘, 건설장제, 터널 락볼트, 건설장비사고 등의 중점관리 방안이다

이번 교육은 그간 원도급사 감독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하도급사를 포함, 현장 건설관계자(공사관리관, 책임감리원, 현장소장(하도급포함),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장비운전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안품질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으로 '13년도 대비 철도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50%이상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야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15년도에는 모든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제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철도기술인과 소통 통한 눈높이 교육 시행

- 철도관련 학과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추진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철도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철도기술동향, 고속철도 설계기준, 주요 연구내용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전파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시행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철도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동양대학교 등 4개 대학을 찾아 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철도기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고속철도 설계기준 등 공단의 철도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직원들이 직접 전문분야별 강사로 나서 교육을 시행해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철도 각 분야별 건설현장 견학 등 체험형 학습을 개발해 미래 철도인들의 신기술 경험을 확대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탄진 산림공원 숲 가꾸기’ 행사 시행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달 26일 'KR과 지역주민 함께하기' 운동실천을 위해, 임직원 40명이 참여하는 '신탄진 산림공원 숲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본부 직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화단 및 산책로의 잡초제거와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공원 내 쉼터, 벤치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점검과 보수도 병행해 시행했다.

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 생활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자연공간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쳐 나가도록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신탄진공원이 주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도심 속 푸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2007년 12월부터 산림청과 신탄진소재 산림공원 가꾸기 협약을 체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저탄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무역량 향상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시행

- 국가소송 유형별로 실무사례 중심 교육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철도건설과 관련된 소송 시 올바른 대응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17일 대전 본사 교육장에서 소송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철도건설업무와 전국의 철도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에서 담당자들의 법무역량을 높여 올바르게 대응하고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소송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검찰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진행되는 소송실무교육으로서 법무관을 전문가로 초빙, 소송수행절차, 소송수행요령, 최근 판례 및 실무사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 소송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처 관계자는 “공단의 국유재산관리에 매우 중요한 국가소송의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관련 소송을 예방할 수 있어 대·내외 고객만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도 기술개발 성과보고회’ 개최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지난달 24일 공단 대전 본사에서 '2014년도 기술개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중 국가R&D 6개, 위탁 1개, 자체 3개, 구매조건부 1개 총 11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우송대 철도물류대학장인 '정찬목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공단의 전반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평가도 겸하여 이뤄졌다.

주요 기술개발 성과로는 고속철도 터널 단면적 최적화, 터널 등 전력유도 적용계수 개선 등으로 총 2,720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비롯해 '11년부터 추진 중인 국산화 대상 109개 품목 가운데 106개를 완료해 97%의 국산화를 달성하였고 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한 자기부상철도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원장은 “사업비 절감, 신기술개발, 국산화 등 기술개발 대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철도건설사업의 가치 향상과 사업비 절감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철도건설 기준 마련을 목표로 내실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1,500포기 전달

- 올해도 직접 키운 친환경 재료로 김장 나눔 시행 -



공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1사1촌 결연마을인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산별 참살이 마을에서 임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함께하는 '201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특히 2012년부터는 매년 1사 1촌 결연마을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고추와 배추 등 친환경 재료들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 김장 재료를 마련해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김장나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장행사에서 만든 김치는 철도변 소외 청소년 24가구(40kg/가구)와 대전 동구 지역의 소외기관에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공단은 2004년부터 출범 이후로 1사1촌 농촌마을과 협약을 맺고 11년째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KR소년단 등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경영노무처 관계자는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등 나눔확산을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 더욱 지역밀착맞춤형 봉사활동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본사 뿐 아니라 전국의 5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순천, 원주, 대전 위치)에서도 매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충청본부에서 재가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대전의 밀알복지관을 찾아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궤도업체 애로사항 해소’ 발 벗고 나서다

- 업체와 공단 상생발전 토론회 열어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지난달 27일 궤도협력사 36개사와 함께 궤도분야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모색하기 위해 상생발전 토론회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부는 토론회에서 그간 궤도분야에서 제기되었던 업체간 답합의혹 해소를 위한 궤도공사 발주방향 및 사전계약형콘크리트궤도(PST),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본부는 그 동안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궤도건설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부서 부장 이상의 전원 교체, 자체선정 투명화 위한 표준규격서 제정 등 자구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궤도건설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협력사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어르신 위한 「장수사진 촬영행사」 시행

- 호남선 철도변 마을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호남선 연산 ~ 논산간 청동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연을 맺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를 찾아 지난달 27일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드렸다.

이 날 봉사활동은 본부에 근무하는 사진동호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마을 어르신 20여명에게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수 등을 나누어 드리며 한 분씩 정성스럽게 「장수사진」을 찍어드렸다.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공단 직원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하차도 공사도 해줬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정성껏 찍어주니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다.

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드리는 작은 봉사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받으니 오�히려 고맙다”며 “앞으로도 공사현장 인근마을을 찾아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온정나눔 봉사활동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지난달 26일 대전시 관암사회복지관을 찾아 무의탁 노인에게 급식지원 및 사랑의 선물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구원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독거노인 가정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고 복지관을 찾은 독거노인과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각자의 소망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은 2011년부터 관암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철도변 소외계층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